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결정도 나기 전에 철회한 일이 있다. 설악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외국인 과학자가 방문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공항에서부터 프래카드를 붙이고 집단으로 지정을 반대했다. 이도 모자라 일부 주민들이 프랑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부를 찾아가 반대한다는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유네스코에서는 최근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례로 우리나라를 들고 있다.